

문화

■ 11일 타계한 정기용 건축展 둘러보니

그의 작품엔 삶이 녹아있었다

5월 27일까지 전대 박물관

언젠가 순천 기적의 도서관을 찾았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 곳을 찾는 아이들은 참 행복하겠다"는 거였다. 기존의 딱딱한 도서관과는 달리 아이들의 눈높이에 딱 맞춘 도서관은 책을 읽는 공간이자, 놀이터였다. 우연한 기회에 방문했던 제주 서귀포 기적의 도서관도 마찬가지였다. '기적의 도서관' 프로젝트의 중심에는 건축가 정기용이 있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를 설계했고, 공공건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던 '무주 프로젝트'로 잘 알려진 건축가 정기용(1945~2011)씨가 지난 11일 타계했다.

마침 정씨의 방대한 작업세계를

아우르는 '정기용 건축전-소통과 감응의 건축가'전이 전대 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다. 지난 1월말까지 서울 일민미술관에서 열렸던 전시회를 옮겨온 것이다. 14일 광주에서 활동하는 건축가 박흥근씨, 이번 전시회를 기획한 황호균 학예연구사와 함께 전시회를 둘러봤다.

전시작은 청년 시절부터 최근까지 설계 작업을 위해 작성한 노트 30여 권과 스케치 100여 점, 건물 모형 20여 점, 사진, 서적, 육필 원고 등 그가 고민하고 실천한 건축의 공공성을 증언하는 소중한 자료들이 총망라돼 있다.

전시장 입구에는 무주 프로젝트, 제주 4·3 공원, 간디 학교, 프랑스 대사관저, 계원예술대학, 서귀포와 순천 기적의 도서관 등 그가 설계했



순천 기적의 도서관



무주 향토박물관 스케치

던 건축 모형과 스케치·건물 사진을 담은 앨범이 전시돼 있다.

황 학예사는 "정기용의 작품은 자연과 소통하고, 사람과 소통하는 건축물"이라며 "그의 건축물은 위압적이지 않고 사람들의 삶과 잘 녹아 있다"고 설명했다.

정씨가 "행운이면서 동시에 고난의 행군"이었다고 말할 무주프로젝트는 1996년부터 2006년까지 무려

10년간 무주의 마을회관, 면사무소, 군청, 버스정류장 등 30여개의 건물을 디자인한 대규모 프로젝트였다.

박흥근씨는 "건물을 설계할 때는 이용자와 설계자가 많은 대화를 주고 받아야 하는데 공공건물을 설계할 때는 발주자(공무원)의 의견을 듣는 경우가 많다"며 "정기용 건축가는 무주 프로젝트 등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공무원을 설득, 삶과 밀착된 건물을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목욕탕이 멀어 가장 불편하다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면사무소에 공동목욕탕을 마련한 게 대표적인 예다.

박씨는 무주 프로젝트 현장을 찾

기적의 도서관·봉하마을 사저·무주 프로젝트 건축 모형·드로잉 등 200여점... 다큐도 상영

그밖에 지난해 촬영한 1시간 분량의 다큐멘터리에서는 자신의 작품과 건축관에 대해 담담히 이야기하는 정씨의 모습도 인상적이다.

서울 전시 당시 아픈 몸을 이끌고 전시장을 찾았던 정씨는 "이번 전시는 건축가나 건축학도를 위한 게 아니라 대중과의 소통을 위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는 말을 전했다

그의 작품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전시회는 오는 5월 27일까지 계속되며 월~금요일(오전10시~오후5시)과 매월 첫째·셋째 토요일 문을 연다. 무료 관람. 문의 062-530-3583. /김미은기자 mekim@

10년간 무주의 마을회관, 면사무소, 군청, 버스정류장 등 30여개의 건물을 디자인한 대규모 프로젝트였다.

박흥근씨는 "건물을 설계할 때는 이용자와 설계자가 많은 대화를 주고 받아야 하는데 공공건물을 설계할 때는 발주자(공무원)의 의견을 듣는 경우가 많다"며 "정기용 건축가는 무주 프로젝트 등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공무원을 설득, 삶과 밀착된 건물을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목욕탕이 멀어 가장 불편하다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면사무소에 공동목욕탕을 마련한 게 대표적인 예다.

박씨는 무주 프로젝트 현장을 찾

■ 정기용(1945~2011)은

- ▲서울대 응용미술과·대학원 공예과 졸업
- ▲파리장식미술학과 실내건축과 졸업
- ▲파리 6대학 건축과·8대학 도시계획과 졸업
- ▲민예총·민족건축협의회회장
- ▲(주)기용건축 사무소 운영, 성관대 석좌교수
- ▲저서 '사람·건축·도시', '감응의 건축', '기적의 도서관' 등



14일 황호균 학예연구사와 전대 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정기용 건축전'을 찾은 건축가 박흥근(사진 왼쪽)씨는 "정기용의 건축물은 삶과 밀착된 작품들"이라고 말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김명자 작 '환상'

자연이 있어 빛나는 '찰나의 미학'

흔적의 시간전, 4월 10일까지 상록전시관

신경철 초대전, 17~30일 롯데갤러리

한 장의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오랜 기다림과 빛, 완벽한 구성, 적절한 셔터 속도 등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하다. 이렇게 카메라 앵글에 담긴 순간은, 기억 보다 더욱 오래 남는 '찰나의 미학'이 된다.

광주에서 사진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사진전이 잇따라 열린다.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은 오는 4월10일까지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은 사진 작품을 선보이는 '흔적의 시간'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강사원·기우경·김명자·문석주·문월식·박병준·박현진·배상만·송복진·송창근·신현숙·신현정·양명숙·양승원·이방일·이상로·정태호·주영기·한종호·황현주씨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한국의 춤, 마을 앞의 장승, 나무나 전통 가옥 등 한국의 다양한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문의 062-613-5391. 또 사진작가 신경철씨는 오는 17~30일 롯데갤러리에



신경철 작 '내 마음에 파라다이스'

서 초대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그는 '내 마음에 파라다이스'를 주제로 산과 강을 배경으로 환경의 소중함을 담은 신작을 발표한다.

바람에 가지가 휘 소나무와 구름, 눈이 조화를 이룬 풍경은 아늑함을 주고, 아무렇게나 피어난 잡초는 강인한 생명력을 담고 있다.

중앙대 사진학과와 미국 로체스터공대 영상예술대학원을 나온 뒤 광주와 서울, 뉴욕 등지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문의 062-221-1808.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연극제' 어떤 연극해요?

18일 '현모양처' 20일 '막차 타고 노을 보다' 21일 '매화 연정' 23일 '남과 여'

봄을 맞아 지역 연극계가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다.

광주연극협회(회장 최영희)는 오는 18~23(오후 7시30분)일까지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제 25회 광주연극제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강원도 원주에서 열리는 제 29회 전국연극제 광주 예선 대회도 겸한다. 경연 참가 팀은 모두 4개 극단이다.

18일에는 극단 열·아리가 '현모양처'를 무대에 올린다. 극단 대표 양태훈씨가 극본과 연출을 맡은 작품으로 '말굽'이라는 한 여자의 인생을 찬찬히 따라간 작품이다.

20일(오후 6시) 공연되는 극단 터의 '막차 타고 노을 보다'는 김창일씨의 희곡을 무대화한 작품이다. 큰데, 작은데 두 여자를 거느리고 사는 노인 박삼재가 갑자기 쓰러지고, 이를 둘러싼 가족과 친구들의 이야기가 전개된다. 정순기씨가 연출을 맡았다.

푸른연극마을은 21일 '매화 연정'을 선보인다. 평화롭던 사촌 마을의 운동회날, 한 때 마을 사람들을 죽임의 공포로 몰아넣었던 제국의 군인들이 들이닥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극단 대표 오성원씨가 직접 희곡을 쓰고 연출도 맡았다.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유괴씨여타가 '남과 여'를 공연한다. 앞으로 더 이상은 여자를 사귀지 않겠다고 맹세한 세

명의 실연남이 결국은 다시 여자를 만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임유리 작, 김균형 연출이다.

티켓 가격 일반 2만원, 중·고생 1만원, 현혈증 기준 시 무료관람, 현대오일뱅크 보너스 카드, 씨너스 전대점 관람권, 지역 극단 공연 관람티켓을 가져오면 30% 할인해 준다. 문의 062-523-729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빛고을국악전수관 수강생 모집

서구청 빛고을 국악전수관이 제 36기 국악문화학교 수강생을 모집한다.

강의 기간은 오는 4월 4일부터 6월 24일까지 3개월 과정으로 진행되며 모집 분야는 민요·판소리·가야금·대금·단소·장고·고법(북)·해금이며 초·중·고급반으로 16개반을 운영한다. 강의는 주1회 2시간(단, 단소는 주1회 1시간수업)씩 진행하며 강좌별로 20명씩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31일까지, 수강료는 3개월에 5만원(단소는 3개월 4만원)이다. 문의 062-350-4557. /김미은기자 mekim@

광주일보 창사 59주년 기념

www.musicalyounga.com

CAST 송창의, 윤도현, 리 사, 임병근, 허 규

뮤지컬 광화문 연가

2011년 4월 22일(금)~24일(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 주 최 | 광주일보 KBC
| 주 관 | KBC미디어컴 · 영무엔터테인먼트

| 공연시간 | 22(금) 오후 8시 · 23(토) 오후 3시 · 7시 30분 · 24(일) 오후 3시
| 티켓가격 | VIP석 110,000원 · R석 99,000원 · S석 88,000원 · A석 66,000원 · B석 55,000원
| 예매처 | 인터파크 · 쇼티켓 | 공연문의 | 062-220-0541

